

# 김제지역어 ‘어’ 생략 현상의 원인에 대한 연구\*

장 승 익(전북대)

## 1. 서론

본고의 목표는 김제지역어에 나타나는 ‘어’계 어미의 이른바 생략 현상을 살펴 보고, 그 원인을 유추적 확대(analogical extension)로 설명하려는 것이다.<sup>1)</sup> 김제 지역어에는 일부 개음절 어간(또는 선어말어미) 뒤에서 ‘어’계 어미의 두음 ‘어’가 생략되는 것으로 보이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 환경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sup>2)</sup>

(1) 김제지역어에서 ‘어’ 생략의 환경<sup>3)</sup>

① 선행요소가 ‘이’일 때: 갈치(敎)-, 냉기(餘)-, 주시(授; 주+-시-)-, 자빠지- 등.

---

\* 이 논문은 장승익(2008)의 §3.4 어미 ‘-어’ 탈락’ 부분을 토대로 작성되어 제5회 한국방언학회 학술대회(2008. 6.27~28, 전주대)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발표·수정 과정에서 도움을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 1) 본고에서는 ‘어’ 생략 현상의 원인을 두 단계로 설정하여 설명하는데, 그 중 첫 번째 단계는 엄밀한 의미에서 ‘생략’이라고 볼 수 없다(§3.1참조). 하지만 이 현상을 통칭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어’ 생략이라 하였다.
- 2) 국어에는 어간말 모음이 ‘어, 예; 아, 예’일 때 후행하는 어미 두음 ‘어/아’가 생략되는 현상이 있다(허용 1985/1989: 282). 이 현상은 개음절 어간 뒤에서 ‘어’계 어미의 두음이 생략한다는 점에서 표면적으로 본고에서 다루고자하는 이른바 ‘어’ 생략과 그 실현 양상이 유사하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을 것이다.
- 3) (1)은 선행요소의 음절수는 고려하지 않고, 선행요소의 모음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최명옥

- ㄱ. 공계, 누나를 국민학교백이 못 갈치잖아.
- ㄴ. 이 년들이 물 냉기 놓도 얹히고 싹 훑어 간다고.
- ㄷ. 하늘님이 다 주시야 먹고 살어.
- ㄹ. 쓰라린 고통이 죽어 가면서도 자빠지 감서 그글 지켜나온...
- ② 선행요소가 '위'일 때: 뒤-, 휘-
  - ㄱ. 굶는디 내 거그를 똥 들어 갔어.
  - ㄴ. 허리가 휘지서 근다고 그러.
- ③ 선행요소가 '외'일 때: 피-
  - ㄱ. 쏘려서 오는 사람덜 전부 거리 일단 피야. 일단 피서. 공계 그전에 거기에  
에: 일본군 해군 햅 해군 머 기진가 머 되는 햅이더만.
- ④ 선행요소가 '으'일 때: 발르-, 질르-, 말르-
  - ㄱ. 그놈을 살:짜 발르 갖고 인자 그놈을 호박잎 넣고
  - ㄴ. 논두렁 그 불 질르야지 다
  - ㄷ. 너물 소쿠리 채다보든 뻘 말르 갖고 멧 개나 캐가꼬
- ⑤ 선행요소가 '우'일 때: 주(授)-, 배우- 등.
  - ㄱ. 나락 다숫 가마니 딱딱 주야여.
  - ㄴ. 근디 배웠는디, 배웠는디도 거까지는 실행을 안혀.
- ⑥ 선행요소가 '오'일 때: 보-
  - ㄱ. 재건 한번 히 보야것다고 참 끗끗이 히 나간 거여.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현상이 일어날 때 선행 요소는 '이, 위, 외, 으, 우, 오'로 다양한데, 이중 선행요소 '이' 아래(1①)에서 그 출현이 활발하다.<sup>4)</sup> 이 현상은 전북 방언에서 두루 확인된다(이상신 1983; 최전승 외 1992; 김규남 1987, 1998; 김옥화 2000 등).

이중 (1)①의 환경에서 '어' 생략은 전북방언에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

---

(1995)에서는 전북방언에서 1음절 '이' 어간의 경우는 '어'가 생략되지 않는 반면, 2음절 '이' 어간 아래에서는 '어'생략이 일어남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선행요소의 '음절수'도 주요 고려 사항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김옥화(2000)에는 전북방언 중 1음절 어간 아래에서 '어' 생략을 보이는 예가 나타난다(키-(育), 차-(打) 등). 그리고 김제지역어에서도 이러한 예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피-(開) 등).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이 현상을 기술하는 데 있어서 음절수는 크게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분류 시 고려하지 않았다.

4) 김제지역어를 대상으로 구축된 방언자료에서 '어' 생략을 보이는 형태는 (1)에 제시된 것을 포함해 총 65건이었다. 이중 선행 요소가 '이'인 형태가 49건, '우' 7건, '으' 3건, '위' 2건, '외·오' 각각 1건이 출현했다.

은 아니다. 이미 최명옥(1976)에서 서남경남방언을 대상으로 이를 다룬 바 있고, 정인상(1982)에서 경남 통영지역어, 정인호(1995)에서 전남 화순지역어, 한성우(1996)에서 충남 당진지역어를 대상으로 이 현상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최명옥(1995)에서는 (1)①의 환경에서의 활용양상을 전국적으로 살펴보고, 통시적인 관점에서도 접근을 시도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각 방언에서 일어나는 ‘어’ 생략 현상이 출현 범위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이를 동일한 변화 과정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어휘적 확산 이론(Wang 1969)에 따른 것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음변화가 시작되어 완료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느 시기이나 보수적인 형태와 개신 형태가 공존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관점은, 진행 중인 변화에서 그 확산의 속도가 어휘마다 다를 수 있음도 지적하고 있다(Chambers and Trudgill 1980/1999). 이는, 언어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라는 Milroy(1992)의 견해와도 상통하는데, 즉 각 방언에서 이 현상이 일어나는 환경 차이를 일종의 변이 상태로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김제지역어에서의 ‘어’ 생략 현상에 대한 다음 몇 가지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여러 방언에서 나타나는 ‘어’ 생략 현상을 동일한 원인에 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가? 이를 위해, 우리는 각 방언에서 ‘어’ 생략이 일어나는 환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여러 방언에서 ‘어’ 생략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환경이 (1)①과 동일함을 볼 것이다.

둘째, (1)①에서 ‘어’ 생략의 원인은 무엇인가? (1)①을 먼저 살펴보는 이유는, 이 환경에서 ‘어’ 생략이 다른 방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간 (1)①의 환경에서 나타나는 ‘어’ 생략에 대해 ‘완전순행동화’(최명옥 1976), ‘축약 후 모음상승’(정인상 1982, 김규남 1998), ‘어 탈락’(정인호 1995), ‘으 재구조화 후 탈락’(김옥화 2000) 등으로 설명하였다. 이 중 본고는 ‘축약 후 상승’으로 (1)①에서의 ‘어’ 생략을 해석하고자 한다. 이 견해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3.1에서 검토할 것이다.

셋째, (1)②~⑥에서 ‘어’ 생략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를 설명하기 위해 우리는 ‘유추적 확대’의 개념을 이용하고자 한다. §3.2에서는 유추적 확대의 개념과 더불어 이 현상을 유추적 확대로 해석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그

리고 ‘유추적 확대’가 기존 논의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본고에서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은 자료는 김제의 노년층 화자들의 자연 발화에 담겨있는 방언형이다.<sup>5)</sup> 자료는 필자가 2007년 3월부터 10월까지 김제 시 만경읍, 봉남면, 죽산면, 백산면 등지에서 65세 이상의 토박이 화자의 말을 녹음·전사하여 구축하였다. 음성자료는 약 20시간이며 전사된 자료는 약 100,000어절 가량이다. 이 밖에도 《한국방언자료집 V: 전라북도편》에 실려 있는 자료와 ‘어’생략을 언급한 기존 연구의 자료들을 참고하였다. 참고 자료에는 출처 정보를 명기하였다.

## 2. 각 방언에서 나타나는 ‘어’ 생략의 양상

서론에서 우리는 (1)①의 환경에서 나타나는 ‘어’ 생략이 전북방언 뿐 아니라 다른 방언에서도 나타남을 언급하고, 이를 동일한 원인에 의한 변화 과정으로 가정한 바 있다. 이에는 몇 가지 근거가 있다.

무엇보다도 (1)①의 환경과 각 방언에서 나타나는 ‘어’ 생략의 환경이 일치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다음은 기존 연구에서 다루어진 ‘어’ 생략의 예이다.

- (2) ㄱ. 잡히서, 잡혔다(‘잡히다’) <최명옥 (1976)>
  - ㄴ. 땡기서, 땡기도, 땡기라(‘다니다’) <정인상 (1982)>
  - ㄷ. 쑤시라(‘쑤시다’); 땡기 부라(‘다니다’) <정인호 (1995): 56>
  - ㄹ. 모시야(‘모시다’) <한성우(1996: 65)>

(2)를 보면 선행 요소가 ‘이’이고 후행 요소가 ‘였, 어, 어서, 어라, 어도, 어야’라는 점에서 (1)①과 일치하고 있다. 동일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이들 현상에 대해 서로 다른 원인을 가진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게다가 최명옥(1995)에서는 (1)①의 환경에서 각 방언의 예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

---

5) 전북방언의 구획을 시도한 이승재(1987), 소강춘(1989), 최진승 외(1992) 등에서 김제방언은 임실, 완주 일부(전주 포함, 동상·비봉·화산·운주 제외), 진안 일부와 함께 핵방언권으로 분류되어 있다. 따라서 김제방언은 전북방언의 특징을 잘 반영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들은 통시적 관점에서 형태소 내부의 ‘어>에>이’와 관련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둘째, ‘어’ 생략의 적용 범위가 방언마다 다르다는 점이다. 한성우(1996)에는 (2)ㄷ에서 제시한 예 이외에 다음과 같은 예도 나와 있다.

(3) 주야(‘주다’), 그만두야(‘그만두다’), 보야(‘보다’) <한성우(1996: 65)>

이 예는, 비록 후행하는 어미가 ‘-어야’로 한정되어 있지만, 선행 요소에 ‘이’가 아닌 다른 모음(우, 오) 아래에서도 ‘어’ 생략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다. 이를 전북방언을 비롯한 다른 방언과의 비교해 보면 그 실현 범위가 조금씩 넓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경남방언·전남방언에서는 ‘이’아래, 충남방언에서는 ‘이, 우, 오’ 아래, 전북방언에서는 ‘이, 우, 오, 으, 위, 외’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변화 과정이 동일한 가운데, 그 변화 속도가 각 방언마다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장에서는 ‘어’ 생략 현상의 동기가 각 방언마다 동일함을 살펴보았다. 이럴 경우, 그 변화의 시작은 여러 방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1)①이다. 따라서 3장에서는 먼저, 각 방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선행 요소 ‘이’ 아래에서 ‘어’ 생략”의 원인을 모색해보고, 이를 토대로 이 현상이 다른 환경에까지 확대되는 원인을 밝혀보기로 한다.

### 3. ‘어’ 생략의 원인

#### 3.1. 선행요소 ‘이’ 아래에서 ‘어’생략의 원인

(1)①의 환경에서 ‘어’ 탈락을 설명하는 견해로 ‘완전순행동화’(최명옥 1976), ‘축약 후 모음상승’(정인상 1982), ‘어 탈락’(정인호 1995, 한성우 1996), ‘으 재구조화 후 탈락’(김옥화 2000)등이 있다. 최명옥(1976)과 정인호(1995), 한성우(1996)은 공시적인 관점에서 각 방언의 ‘어’ 탈락 현상을 규칙으로 설명하고 있다. 김옥화(2000)은 전북방언에 ‘어>으’의 과정을 거쳐 재구조화된 ‘으’계 어미가 있으며, 이 어미가 탈락하는 것으로 이 현상을 해석한다.

위의 견해들은 설명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김제지역어 및 여타 다른 방언에서 나타나는 자료를 바탕으로 이 현상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본고는 기본적으로 정인상(1982)의 견해와 입장이 같으나, ‘축약 후 모음상승’을 공식적인 현상이 아닌 통시적 변화(여>예>이)로 본다. 이렇게 보는 데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에 기인한 것이다.

첫째, 우리가 앞서 살펴 본 (1)①과 음운론적으로 동일한 조건을 가진 형태소 내부에서도 이 현상이 나타난다.

(4) 형태소 내부에서 ‘축약>단순모음화>모음상승’을 경험한 예<sup>6)</sup>

- ㄱ. [가깅](가격), [깅빈](강변), [구빔](구별), [남빔](남편), [대빔](대변), [대통령](대통령), [새빔](새벽), [안깅] (안경), [여리섯](열여섯), [저늑](저녁), [혁빔](혁명), [양빔](양념), [송빔](송편)
- ㄴ. [기꺼봐서](겨어 봐서), [어룬](어려운), [어리울](어려울), [어리운](어려운)
- ㄷ. [해이나](행여나)
- ㄹ. [벤닌](몇 년)

위의 예들은 형태소 내부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다. 그리고 이들 예가 ‘어’ 또는 ‘으’ 탈락의 결과라고 보기도 힘들다. 김제지역어에서 ‘어’와 ‘으’는 음성적으로 매우 가깝기 때문에 이 지역어에서 ‘어>으’ 모음상승은 형태소 내부와 경계에 상관없이 두루 나타난다.<sup>7)</sup> 그러나 (4)의 예는 ‘어>으’를 적용한다 해도 위와 같은 결과에 이르지 못한다. ‘으’ 탈락은 형태소 경계에서만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의 예들은 형태소 내부에서 ‘ㄷ>(ㄱ)>ㅣ’의 과정을 겪은 것으로 설명해야 한다. (9)와 같이 단순모음화한 예가 출현한다는 것은 이러한 주장을 더욱 강화시켜 준다.

6) 이 외에도 [무](뫼), [문](뫼)이 출현하였다.

7) 장승익(2008: 16-22)에서는 김제지역어 단순모음의 포트 값 계산하여 Yang(1996)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이 중 ‘어’와 ‘으’를 살펴보면, Yang(1996)에서 ‘어(F1: 608, F2:1121)-으(F1: 405, F2: 1488)’로 각 포트 값이 약 200, 350 (Hz)의 차이를 보인 반면, 김제지역어에서는 ‘어(F1: 425, F2: 1200)-으(F1: 335, F2: 1401)’로 각 포트의 편차가 100, 200 (Hz)로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중부방언보다 이 지역어에서 ‘어’와 ‘으’의 간격이 가까움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 (5) ㄱ. [구별](구별), [남편](남편), [새벽](새벽), [청편](송편)  
 ㄴ. [계끼야](겪어야)

비슷한 예가 정읍지역어에서도 나타나는데, 다음은 김규남(1998: 63-64)에서 제시한 예의 일부이다.

- (6) ㄱ. 몇~멧~밧, 멀치~멜치~밀치, 명당~멩당~밍당, 병신~뵵신~빙신,  
 병~뵵~빙,  
 ㄴ. 편허다~뵵허다~뵵허다, 쳐다보다~체다보다~치다보다

둘째, 우리의 주장이 타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활용형 중에 ‘여’와 ‘이’의 중간 단계인 ‘에’가 나타나야 한다. 비록 적은 수이긴 하지만 김제지역어에는 ‘내레 가지고(내려 가지고), 흘레 감서(흘려 가면서)’ 등이 발견된다. 게다가 《한국방언자료집 V》(전라북도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여~에~이’가 공존하는 모습을 쉽게 찾을 수 있다.

- (7) 송겨 ~ 송게 ~ 쉩기, 알려~알레~알리, 갸혀~갸해, 갸히,  
 뵵여라~뵵에라~뵵이러, 꿩여라~꿩에라~꿩이러, 문혔다~문혔다~문혔다,  
 읊겼다~읊겼다~읊겼다, 매달려~매달레~매달리, 읽혀~읽헤~읽히,  
 무쳐라~무체라~무치러, 드려라~디레라~디리러, 버렀다~버렷다~버뤼다,  
 때려서~때레서~때리서, 가라쳐~가리체~갈체~갈치, 말겨야~말게야~말기야

- 《한국방언자료집 V》(전라북도편): 191-236.

셋째, 전북방언 이외의 방언에서도 ‘여~에~이’와 같은 변이형의 공존이 확인된다. 이는 해당 방언에서도 ‘여>에>이’의 과정이 자연스럽다는 증거이며, 또한 각 방언에 나타나는 이 현상이 동질적이라는 2장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기도 하다. 간략하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8) ㄱ. 믱여라~믹에라~믹이라, 무쳐라~무체라~무치라, 숨켜~숨케~솅키 등.

- 《한국방언자료집Ⅵ》(전라남도편): 263-322.

ㄴ. 마세라~마시라, 무체라~무치라, 실려~실리, 앓체라~앓히라, 끌려~끌리 등.

- 《한국방언자료집Ⅷ》(경상남도편): 229-280.

## 3.2. ‘이’ 외의 선행 요소 아래에서 ‘어’ 생략의 원인

### 3.2.1. 유추적 확대의 개념

앞 절에서 우리는 김제지역어 및 여타 다른 방언의 자료를 중심으로 (1)①의 환경에서 ‘어’ 생략 현상을 ‘축약>단순모음화>모음상승’의 결과로 결론 내렸다. 이제 이 장에서는 전북방언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1)②~⑥의 환경에서 일어나는 ‘어’ 생략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유추적 확대’의 개념을 도입한다.

소장문법학자(Neogrammarians)들은 언어변화를 ‘음변화(sound change)’와 ‘유추(analogy)’로 나누고, 전자는 ‘동화(assimilation)’나 ‘약화(weakening)’처럼 규칙적인 변화에 사용하였고, 후자는 비규칙적이고 우발적(sporadic)인 것으로 인식하였다(Bynon 1977: 35-39). Hock(2003: 441-442)에는 유추로 논의되었던 주요 현상들을 ‘4항 유추(four-part analogy), 평준화(leveling), 형태음소적 확대(morphophonemic extension), 혼성(混成; blending), 감염(contamination), 재구성(recomposition)’으로 요약·제시하고 있다. 이중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형태음소적 확대’인데, 이에 대해 Hock(2003: 442)가 제시한 예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9) the matter[ə∅] was : the matter[ər] is  
the idea[ə∅] was : X = the idea[ər] is

‘idea[aidi:ə]’는 본래 [r]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matter’의 굴절에서 [r]음이 실현·비실현되는 경향에서 유추적 확대를 일으켜 ‘is’ 앞에서 [r]음을 첨가시킨 경우이다.

위의 설명 방식은 우리의 논의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이를 비례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sup>8)</sup>

- |                 |   |              |
|-----------------|---|--------------|
| (10) ① 갈치- + -니 | : | 갈치- + -야     |
| ② 뛰- + -니       | : | X = 뛰- + -야  |
| ③ 뵈- + -니       | : | X = 뵈- + -야  |
| ④ 발르- + -니      | : | X = 발르- + -야 |
| ⑤ 주- + -니       | : | X = 주- + -야  |
| ⑥ 보- + -니       | : | X = 보- + -야  |

즉, 선행 요소 ‘이’와 ‘어’계 어미 두음이 결합하여 통시적으로 ‘여>에> 이’의 변화를 겪었다. 그런데 이 변화는 결국 선행 요소의 말음과 동일한 ‘이’가 되었다. 변화과정을 의식하지 못하는 화자들은 (10)①의 환경에서 어미 두음 ‘어’가 생략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개음절 모음(②~⑥)에까지 두음 ‘어’를 생략한 어미(∅쓰, ∅, ∅서, ∅도, ∅라, ∅야)를 결합한 것이다.

### 3.2.2. 유추적 확대의 설명력

먼저, 공시적 규칙화 논의가 담아낼 수 없었던 공시적 변이 상태의 정보를 설명할 수 있게 해준다. 아래의 (11)은 김제지역어에서 ‘어’ 생략 현상을 보이는 어형들의 ‘총출현 횟수’에 따른 ‘어’ 실현·비실현 양상을 조사하여 제시한 도표이다.<sup>9)</sup>

---

8) 발표과정에서 ‘(9)의 비례식과 (10)의 비례식을 동질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가’하는 지적이 있었다. (9)의 idea의 경우, ‘matter’로 인해 전혀 없었던 교체를 새롭게 하게 된 반면, (10)에서는 어느 부분이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교체’인지 확실치 않다는 것이다. 본고에서 (10)를 ‘유추적 확대’로 해석하려 한 것은, 본래의 교체 양식 ‘뛰어야, 뵈어야, 발러야’ 등과 달리 ‘뛰야, 뵈야, 발르야’ 등으로 실현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갈치- + -어야’에서 축약 후 상승 과정을 거쳐 ‘갈치야’로 실현된 것이 언중들 사이에서 ‘갈치-’에 ‘-야’가 그대로 결합한 것으로 인식되고, 이러한 교체 양식이 다른 어간 아래에까지 확대된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10)의 교체 양식도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교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9) 출현횟수가 너무 적을 경우 탈락의 양상을 전반적으로 담아낼 수 없게 되기 때문에 5회 이상 출현한 단어만 제시하였다.

(11) 선행 요소에 따른 ‘어’ 생략 비율

선행 모음	어 간 기본형	총출현 횟 수	/어/실현 횟 수	‘어’비실현 횟 수	생략비율 (%)	예
이	버리-	93	12	81	87	그리버렸어, 버리버리인자
	댕기-	46	12	34	74	댕겼어, 댕기버렸어
	가지-	38	2	36	95	가지 가니까, 가지 갔다고
	갈치-	35	24	11	31	갈치켰더니, 갈치얌
	살리-	30	13	17	57	살리보긔다고, 살리아여
	끓이-	23	2	21	91	끓이서, 끓이붓지마. 끓이어
	생기-	22	6	16	72	생기가꼬, 생겼응게
	시기-	19	1	18	95	시겼습니다, 시기서
	챙기-	19	6	13	68	챙기라이, 챙겼
	모이-	13	9	4	31	모이서, 모있으니까
	빠지-	11	7	4	36	빠지가꼬 (빠져서)
	쟁이-	11	2	9	82	쟁이노먼, 쟁이서
	대리-	10	2	8	80	대리갔드만, 대렸어
	말리-	9	7	2	22	말리가지고, 말리아여
	때리-	8	3	5	63	때리잡자, 때리부서
받치-	7	3	4	57	받치 놓고 있는디 (받쳐)	
일으키-	6	1	5	83	일으키서, 일으키가꼬	
잡히-	6	2	4	67	잡히가게, 잡혔는디	
맥히-	5	2	3	60	맥히서, 맥히버리니까	
계	411	116	295	72%		
우	주-	147	75	72	49	대주서, 갖다주버렸잖아
	세우-	24	22	2	8	세우가지고, 세우알 것인가
	이루-	13	11	2	15	이루야 혀, 이루진
	계	184	108	76	41%	
오	보-	136	133	3	2	보야지
	계	136	133	3	2%	
외	되-	20	14	6	30	되야지, 되서
	계	20	14	6	30%	
위	뛰-	13	7	6	46	뛰들어갔어, 뛰야여
	계	13	7	6	46%	
으	말르-	8	5	3	38	말르 갖고
	계	8	5	3	38%	

총 26개의 형태 중에 (1)①의 환경에 부합하는 경우가 19건이다. 이 사실만으로도 ‘어’ 생략의 방향이 (1)①에서 출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특히 주목할 것은 ‘생략 비율’이다. (1)①은 72%의 생략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나머지 환경들은 그 생략 비율이 5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완전순행동화나 재구조화로는 (1)①의 환경에서 ‘어’생략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나머지 환경(1②~⑥)에서 그 비율이 저조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유추적 확대는 (1)①의 환경에서 일어난 어떠한 변화가 그 환경에서 압도적인 비율로 실현될 때, 다른 환경에까지 이 실현 양상을 확대시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sup>10)</sup>

둘째, 이 지역어의 ‘어’ 생략과 모음조화 현상과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소강춘(1989: 33-54)에서는 모음조화를 공식적인 현상으로 보고, 이 현상에 따른 전북방언의 언어 분화를 살펴보고 있다. 이 논문에 따르면, 김제는 모음조화 양상에 있어 정읍, 부안, 완주, 옥구, 익산과 같은 양상을 보이는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 지역에서는 ‘오’와 ‘외’만이 양성모음으로 기능하고, 나머지 ‘아, 어, 애, 에, 우, 으, 위, 이’는 모두 음성모음이다.<sup>11)</sup> 즉, (1)에서 제시된 ‘보-’와 ‘외-’ 아래에는 어미 ‘-아’가 결합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김옥화(2000)에서의 ‘으’ 재구조화는, 어미 두음이 ‘아’일 때 ‘아>으’의 과정을 설명하기 어렵다. 그러나 유추적 확대는 어미 두음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양성모음 ‘아’를 취하는 위와 같은 예도 설명이 가능하다.

셋째, 규칙의 확대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을 설명할 수 있다. 정인호(1996: 56)에서 제시하고 있는 ‘동모음탈락 규칙’의 확대는 어간 말음 ‘어’ 뒤에서 어미 두음 ‘어’가 탈락한다는 규칙에서 선행 요소의 환경이 [-back]까지 확대되고, 다시 [+high]까지 확대된다. 이 견해는 어떠한 현상의 출발점을 설정하고 그 현상이 ‘확대’되어간다는 점에서 본고의 주장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김제지역어에서는 선행 요소의 환경이 (1)①에서 제시한 것처럼 다양하다. 이를 규칙의 확대로 설명하기에는 그 확대의 순서를 정하는 데 있어서 어

10) 이와 더불어 서론에서 잠시 언급한 바 있는 방언 간의 ‘어’생략 범위의 차이도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해줄 수 있다. 동일한 변화라 할지라도 각 방언의 특성에 따라 그 변화의 속도와 방향이 다를 수 있는 것이다.

11) 이승재(1997: 650)에서도 위와 유사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줄고(2008: 37-41)에서는 김제 방언의 활용에서 나타나는 모음조화의 실현빈도를 정리하였다. 여기에서 단음절 어간 ‘오-’는 총 579회 출현하였는데, 그 중 97%에 해당하는 562건이 어미 ‘-아’와 결합하였다. ‘외-’의 경우에는 총 204회 출현한 가운데, 198건(97%)이 어미 ‘-아’와 결합하였다. 이를 통해, 김제 방언에서 ‘오’와 ‘외’는 아직까지 양성모음으로 기능을 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려움이 따른다. 앞서 살펴본 ‘어’의 실현·비실현 비율은 ‘어’ 생략 현상이 규칙의 단계적 확대에 대한 경향성이 포착되지 않는다.

#### 4. 결론

이상으로 김제지역어에 나타나는 ‘어’ 생략의 원인을 소략하게 살펴보았다. 이상의 논의를 간략하게 제시하고, 본고의 한계를 몇 가지 제시함으로써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김제지역어의 ‘어’ 생략 현상을 ‘유추적 확대’로 설명하고자 했는데, 이 확대는 “선행 요소 ‘이’ 아래”에서부터 출발하였다. 본래 ‘이’ 아래의 ‘어’는 생략된 것이 아니고 ‘여>에>이’의 과정을 거친 것이다. 이러한 변화 과정을 인식하지 못하는 화자는 ‘이’ 아래에서 어미 두음 ‘어’가 생략된 것으로 인식하고, 다른 환경에서까지 두음 ‘어’를 생략하게 된 것이다. 이는, 1)각 방언의 ‘어’ 생략을 동일한 현상으로 함께 설명할 수 있다는 점, 2)공시적 변이상태의 실현 양상을 설명할 수 있다는 점, 3)이 지역어의 모음조화와의 관련성, 4)규칙 확대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을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설명력을 지닌다.

그러나 본고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국어에서 두루 나타나는 ‘애’ 아래에서의 ‘어’ 생략은 다루지 못하였다. 개음절 아래에서 어미 두음 ‘어’가 생략된다는 점에서, 이 현상은 본고에서 다룬 현상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고는 각 방언에서 일어나는 ‘어’ 생략 현상이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지 못하였다. 충분한 논의를 위해서는 각 방언에서 보여준 ‘출현 범위의 차이’를 좀 더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본고의 논의가 다른 방언에서도 체계적으로 설명 가능한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권병로(1987), 《무풍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규남(1998), 《전북 정음시 정해마을 언어사회의 음운변이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옥화(2000), <전북방언 ‘-어X’계 어미의 재구조화>, 《국어학》 36: 97-131, 국어학회.
- 김유범(2004), <언어 변화 이론과 국어 문법사 연구>, 《국어학》 43: 429-460, 국어학회.
- 배주채(1991), <유추변화는 문법변화인가>, 《주시경학보》 7: 137-139, 주시경 연구소.
- 소강춘(1989), 《방언분화의 음운론적 연구》, 서울: 한신문화사.
- 이상신(1983), 《장수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승재(1997), <전북 지역의 모음조화 현상에 대하여>, 《한국어문학논고》, 서울: 태학사.
- 장승익(2008), 《김제방언의 모음 변화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정인상(1982), <통영지역어의 용언활용에 대한 음운론적 고찰>, 《방언》 6: 57-7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문연구소.
- 정인호(1995), <화순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국어연구》 134, 국어연구회.
- 최명옥(1976), <서남경남방언의 부사화접사 ‘-아’의 음운현상>, 《국어학》 4: 61-82, 국어학회.
- 최명옥(1995), <‘X | Vst 어Y’의 音韻論>, 《震檀學報》 79: 167-190, 震檀學會.
- 최전승(1986), 《19세기 후기 전라방언의 음운현상과 그 역사성》, 서울: 한신문화사.
- 최전승(2004), <국어 움라우트 현상의 유추적 확대와 화용론>, 《한국어 방언의 공식적 구조와 통시적 변화》: 19-92, 서울: 도서출판 역락.
- 최전승, 김홍수, 김창섭, 김중진, 이태영(1992), <전북방언의 특징과 변화의 방향>, 《어학》 19, 전북대학교 어학연구소.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1987), 《한국방언자료집》 V(전라북도편).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1991), 《한국방언자료집》 VI(전라남도편).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1993), 《한국방언자료집》 VIII(경상남도편).

한성우(1996), <당진 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국어연구》 141, 국어연구회.  
허웅(1985/1989), 《국어음운학-우리말 소리의 오늘·어제》, 서울: 샘문화사.

B.G. Yang(1996), A comparative study of American English and Korean vowels produced by male and female speakers, *Journal of Phonetics* 24: 245-261.

Bynon, T.(1977), *Historical Linguis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최전승 옮김(1992), 《역사언어학》, 서울: 한신문화사).

Chambers and Trudgill(1980/1999), *Dialectology*, Cambridge University Press.  
Hock, H. Henrich(2003), Analogical Change, *The Handbook of Historical Linguistics*: 369-400, Blackwell Publishing.

Milroy, J.(1992), *Linguistic Variation and Change*, Basil Blackwell(정영인 외 6인 옮김(1998), 《언어변이와 변화》, 서울: 태학사).

Wang, W. S·Y.(1969), Competing changes as a cause of residue, *Language* 45.

【Abstracts】

## A study on a cause of deletion of /어/ in Gim-je Areal Dialect

Jang, Seung-ick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xamine a cause of deletion appearance of /어/ in Gim-je Areal Dialect, explain a cause by analogical extension. It appears the initial sound of a syllable of an ending of a word deletion appearance of /어/ after a part open syllable a stem(or pre-final ending)‘어’계 in Gim-je Areal Dialect. It doesn’t appear an ending of a word /어/ when preceding a vowel ‘이, 위, 외, 으, 우, 오’. There’s mainly appear in Jeonbuk Dialect, it confirmed a word deletion appearance of /어/ of an ending of, especially preceding an element /이/, in Jeonnam, Chungnam, Kyeongsang Dialect.

The result showed that deletion of /어/ after vowel /이/ inside of morpheme and its boundary was due to replacement process as it is. Also, endings that /어/ was already deleted after /이/ eventually, adopted the deletion even after other vowels besides /이/ as of analogical extension.

Key Words : 김제지역어(Gim-je Areal Dialect), /어/ 생략(/어/ deletion), 유추적 확대(analogical extension).

이 논문은 2008년 6월 7일에 투고되었으며, 2008년 7월 18일에 심사 완료되어 8월 10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